

타운뉴스 종교면은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기관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귀 기관에서 홍보하고 싶은 행사나 기사거리가 있으면 이메일 (info@townnewsusa.com) 또는 전화 (562-404-0027) 로 알려주세요.

종교



무관심이 판치는 세상을 기록하다(루가 16, 19-31(다))

선교사자녀 장학생 선발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회장 신용)가 제4회 선교사자녀 장학생 선발을 위한 지원을 받는다. 지원 자격은 고등학교, 대학교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해외 한인선교사 자녀이다. 단, 한국과 미국에서 활동하는 기관 선교사 자녀는 제외한다. 모집기간은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다. 지원자는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가 선정한 OC지역교회 추천을 받아서 자기 소개와 부모의 사역소개가 포함된 지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장학금 전달식은 12월 중순에 열릴 예정이다. 지원서 다운로드 등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연합회 홈페이지(www.odkca.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연합회는 지금까지 선교사 자녀 52명에게 총 5만 8,500달러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한편 이 연합회는 오크리지카운티와 그 인근에 거주하는 평신도들로 구성돼 있다. 평신도라면 교단과 상관없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미라클 블레싱 주님의 영광교회

주님의영광교회(담임목사 신승훈, 1801 S Grand Ave., LA, CA 90015)이 <미라클 블레싱>을 개최한다. 일시는 10월 29일(일)~11월 18(토) 오후 7시 30분이다. 날짜별 강사는 다음과 같다. ▶10월30(월)~11월 2일(목) 김동기 목사(부천광음교회) ▶3일(금)~4일(토) 신승훈 목사 ▶6일(일) 최형규 목사(생수의강선교교회) ▶7일(화) 남상권 목사(남가주어노인팅교회) ▶8일(수) 이나토미 목사(가스펠실로암교회) ▶9일(목) 최형규 목사(생수의강선교교회) ▶10일(금)~11일(토) 신승훈 목사 ▶13일(일)~16일(목) 강신정 목사(논산한빛교회) ▶17일(금)~18일(토) 신승훈 목사

주님의영광교회 측은 "미라클 블레싱을 통해 말씀과 기도로 세움을 받고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에 초대한다." 고 전했다.

▶ 문의: (213) 749-4500

자본주의 경제에서 삶의 최대 가치는 돈을 버는 일이다. 물론 그 돈으로 무엇을 할지는 각자가 알아서 할 일이다. 자본주의 경제 아래에서 돈을 많이 소유한 '부자'와 돈이 없는 '빈자'라는 두 계층이 생겨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빈부의 격차를 해결하고자 칼 막스라는 학자는 공산주의를 주창했지만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만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돈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에는 여러 측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일부 부유층 사람들은 하룻밤에 천만 원이 넘는 돈을 호화 요정에서 쓰고, 병들고 가난한 어느 아버지는 천만 원의 상해보험금을 노리고 아들의 손가락을 자르고는 감옥에 들어갔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는 경제 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다했다. 국가의 경제를 위하여 월남전에 나가서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고, 중동에 간 근로자들은 비지땀을 흘렸으며, 몇 만 원이 안 되는 월급으로도 열심히 일한 젊은 여성들의 정성이 모여서 수출 강국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경제 발전의 진정한 목적인 삶의 질적 성장은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인간의 삶은 혼자서 이뤄지지 않는다. 누구든지 두 사람(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고, 누구든지 이웃과의 만남과 관계가 없으면 정상적인 인간으로 성장하지 못 한다. 그래서 인간(人間)의 간(間)자는 사이를 뜻한다. 결국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 존재한다. 그러므로 나 혼자서만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으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에 불과하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는

극심한 이기주의와 탐욕이 판을 치고, 부정과 부패가 만연해졌다. 이 모든 현상들은 인간 관계가 무너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인간 관계는 먼저 서로에 대한 자연스러운 관심에서 비롯한다. 안 보면 보고 싶어지고, 만나고 싶어야 정상적인 인간 관계이다. 이러한 정상적인 인간 관계를 방해하는 근본 원인은 무엇보다도 물질에 대한 탐욕이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부자의 죄악은 그가 돈이 많았다는 것도 아니고, 그가 거지인 라자로를 멸시하거나 모욕을 주었기 때문도 아니다. 이 부자의 잘못은 단순히 가난한 라자로에게 무관심했다는 점이다. 이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받게 된 원인은 자신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이웃 라자로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않은 것 때문이다.

행자님은 우물가에서 물에 빠질 위험에 처한 어린이를 보면, 먼저 달려가 그를 구하는 것이 인간의 본심이라고 가르쳤다. 측은지심(惻隱之心)이 메말라버린 사회는 사람의 본성이 없어진 비인간적인 사회이며, 결국 우리 스스로가 지옥을 미리 만드는 셈이다.

어떠한 물질이라도 그 쓰임새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된다. 아무리 맛있

는 음식도 배가 고프은 경우라면 그 가치가 발견되며 이미 배가 부른 이에게는 큰 가치를 지니지 못한다. 돈이 언제나 좋은 것만은 아니다. 돈은 꼭 필요한 사람에게 쓰여질 때가 가장 좋은 것이다. 그리고 누구에게 돈이 필요한지를 알려면 무엇보다 가난한 이들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세계 경제는 침체에 빠졌지만 수십 년 전과 비교한다면 먹을 것, 입을 것이 더 풍족하다. 지금 우리 모두에게 정말 부족한 것이 있다면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보듬으려는 따뜻한 마음이다. 딱 한 개라도 나누어 먹으려는 따뜻한 가슴이 아쉬운 것이다. 물질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냉혹해질 수밖에 없다.

가슴이 따뜻하려면 무엇보다도 겸손과 청빈의 가치를 배워야 한다. 겸손과 청빈의 가치는 나눔에서부터 시작한다. 이제부터라도 어떤 걱정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모두 하느님께 맡기고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도록 노력하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서, 내 이웃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대해 생각하고 그를 위해 내가 가진 것을 나누도록 행동하자. 탐욕과 이기심을 버리고 비우고 미소와 친절로 이웃에게 다가가자.

-변희선 신부-

한남체인 내 코웨이 & 실드라이프

Covid-19 소독제품
여러종류 마스크 판매

정수기 / 비데 / 공기청정기 / 연수기
실드라이프 전기매트, 전기장판

정수기 판매 및 렌탈

714.523.9588 / 714.471.1843 5301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1 한남체인 내